

가채점 토대 정시·수시 면접 전략 짜야

정시 지원엔 수능 반영 비율·가산점 꼼꼼히 체크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기말고사 철저한 준비를

수험생 입시 전략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가 진행된다. 수능 가채점을 토대로 수시모집 면접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올인할 것인지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문동호 광주제일고 3학년 부장은 “수능 이후 3주가 수능 이전 300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수험생은 꼼꼼하게 가채점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시 면접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도전할 것인지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채점은 수시·정시 판단기준=영역별 정답이 공개되는 대로 가채점을 꼼꼼하게 해 자신의 성적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채점

분석을 제대로 해야 최상의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부장은 “중위권 수험생의 경우 가채점과 실점수 간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면서 “대학 합격 여부는 점수가 아닌 등수이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의 대학별 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수능 직후인 15일부터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므로 수시 지원 대학 중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

하는 만큼 자신의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능 점수가 평소보다 잘 나왔으면 정시모집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다. 올해는 수능 우선선발이 폐지되면서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수시모집으로 지원해둔 대학이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수시모집에서 한 군데 추가합격이라도 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부 관리 철저히=다음달 3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정시 지원전략을 철저히 짜야 한다.

대학의 수능 반영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수능과 학생부 등의 반영비율),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점수활용지표(표준점수·백분위·혼합활용 등), 모집군, 선택모집단위 정원 등을 살펴야 자신에게 유리한 대

학인지 불리한 대학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나면 긴장감이 풀리기 쉽지만 3학년2학기 기말고사가 남아있다. 정시에서는 3학년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데 반영 과목 수가 적고 등급별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수능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은 소수정 이하에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학생부 관리를 마지막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목표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교과를 확인하고 나서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입 일정도 꼼꼼히=정시 지원 전략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원서접수에 앞서 원서 마감일자와 시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대학별로 일정을 달리해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별 마감일과 마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주요대 정시 일반전형 수능 반영 방법

대학명	모집 계열	성적 활용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목수)	
건국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5	35	사/과[2] 10	문과대 제2외 5% 가산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30	과[2] 20	
경희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5	30	사[2] 15	[인문·사회]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B 20	A 35	30	사[2] 15	
고려대	인문	표준점수	B 28.6	A 28.6	28.6	사/과[2] 14.2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0	과[2] 30	
국민대	인문	백분위	B 30	A 20	35	사[2] 15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백분위	A 20	B 35	30	과[2] 15	
단국대	인문	백분위	B 30	A 20	30	사[2] 20	[국제학부] 국B 20, 수A 20, 영 40, 사[2] 20
	경상	백분위	B 20	A 30	30	사[2] 20	
동국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0	30	사/과[2] 20	[연극학부] 국A/B 40, 영 40, 사/과/직[2] 20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30	과[2] 20	
서강대	인문	표준점수	B 25	A 32.5	32.5	사/과[2] 10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0	B 35	30	과[2] 15	
서울대	인문	표준점수	B 25	A 30	25	사/과[2] 20	[인문] 제2외 2등급 이상 만점, 이하 감점제
	자연	표준점수	A 25	B 30	25	과[2] 20	
서울시립대	인문	표준점수	B 28.6	A 28.6	28.6	사/과[2] 14.2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0	과[2] 30	
성균관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30	30	사/과[2] 10	[자연·인문] 국A 20, 수A 30, 영 30, 과[2] 20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0	과[2] 20	
숙명여대	인문	백분위	B 30	A 20	30	사[2] 20	[인문·경상]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경상	백분위	B 25	A 25	30	사[2] 20	
송실대	인문	표준점수	B 35	A 15	35	사/과[2] 15	[자연-정보통계, 컴퓨터학과 등] 국B, 수A, 영, 사[2] 지원가능
	경상	표준점수	B 15	A 35	35	사/과[2] 15	
아주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0	30	사[2] 20	[자연-다문] 국A 15, 수B 35, 영 35, 과[2] 15
	자연	표준점수	B 20	A 30	30	사[2] 20	
연세대	인문	표준점수	B 28.6	A 28.6	28.6	사/과[2] 14.2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0	과[2] 30	
이화여대	인문	표준점수	B 25	A 20	35	사/과[2] 20	[건강과학대] 국B/영 40 수 35, 사/과[2] 25
	자연	표준점수	A 25	B 25	25	과[2] 25	
인하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0	30	사[2] 20	[아태, 글로벌] 국영 25, 수A 30, 영 30, 사[2] 15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5	과[2] 25	
중앙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30	30	사/과[2] 10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15	B 35	30	과[2] 20	
한국외대	인문	표준점수	B 30	A 25	35	사/과[2] 10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5	A/B 30	25	과[2] 20	
한양대	인문	표준점수	B 25	A 25	25	사/과[2] 25	[인문] 제2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표준점수	A 20	B 30	20	과[2] 30	
홍익대	인문	백분위	B 25	A 25	25	사/과[2] 25	[자유전공] 국수영탐 중 택3, 국수(영 1개)
	자연	백분위	A (33.3)	B 33.3	(33.3)	과[2] 33.3	

“국·수 6월 모의, 영 9월 모의와 비슷한 수준”

양호한 출제위원장

올해 수능은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 하되, 국어와 수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본부가 밝혔다.

양호한 수능출제위원장(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13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은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국어 A형, 수학 A/B형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국어 B형은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문형수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장은 “너무 쉬워 평가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영어는 9월 모의평가 때 만점자 비율이 3.71%나 돼 실제 이 수준으로 출제되면 역대 최고로 쉬운 영어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양 위원장은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을 따랐다. 하지만 6월 모의 평가가 너무 쉬워 9월 수준으로 맞춰보겠다”고 생각했다”며 영어

“물수능”을 예고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영역/과목별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을 출제했다”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출제 범위에서 제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A형과 B형의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EBS와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수능 때 세계지리 문항 오류를 계기로 “교과서와 실제 현재 상황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에 대비해 출제 근거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도록 하고 출제기간 영역간 검토, 영역 내 검토 등 검토과정을 강화하고 검토위원 수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광주 고교교사들 분석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은 올해 수능의 경우 대체로 쉬웠지만 상위권을 변별할 신유형과 고난도 문항들이 일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국어는 문법에서 기존과 달리 변형문항이 등장해 낯설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은 고정적으로 어려운 문항이 4개 출제됐는데 올해 3개로 줄었고, 영어는 너무 평이해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어=A형의 경우 문법 문항 중 국어 사전에 제시된 단어에 관한 정보를 완성하는 능력을 평가한 문항이 까다로운 문제로 꼽혔다. 또 ‘디지털 영상의 확대와 축소를 소재로 한 기술 지문이 제시됐는데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은데다 디지털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국어, 고난도 문항 일부 출제 변별력 변수 수학, 대체로 쉽고 영어, 전체적 평이했다

이규연 상일여고 국어교사는 “9월 모평보다는 쉬웠고, 6월 모평 또는 작년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며 “하지만 수험생들은 그동안 쉬운 문항에 익숙한데라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문법 A형은 14번, B형은 15번이 기존과 달리 문항을 구성해 낯설었고, 문학에서는 EBS와 연계된 지문이었지만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A형과 B형 모두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특히, 여자 수험생들이 매우 까

다롭게 여겼던 ‘도형을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건수 광주수피아여고 수학교사는 “6월 모평 수준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쉽거나 비슷했다”면서 “A형은 21번(수열합)과 30번(미분법), B형은 30번이 변별력을 갖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변별력을 두기 위해 4문항을 어렵게 출제했는데 올해는 도형 문제가 빠져 체감난이도는 낮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철민 송덕고 수학교사도 “30번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

다”며 “이 때문에 1문항만 실수해도 치명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어=변별력 없이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역대 수능 중에서 가장 쉬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빈칸 추론’ 문항이 4개로 줄어든데다, EBS 연계율이 높아져 체감난이도는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창욱 광주대동고 영어교사는 “변별력 있는 문항은 없었다. 9월 모평 수준으로 평이했다”면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추론이 줄어들어 더 쉽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미 고려고 영어교사는 “1등급 컷이 98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 그룹은 만점을 맞아야 할 것 같다. 1문항만 실수해도 2등급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이모저모

○...광주시교육청 제26지구 제3시험장인 동신고 앞에는 살레시오고·전대사대부고 교사·학생들이 선배들을 응원했다. 전대사대부고 후배들은 ‘떡 하니 붙으세요’, ‘2호선 타러 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교가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살레시오고 후배 10명은 이날 선배들이 시험장으로 모두 들어가자 교문 앞에서 큰 절을 한 뒤 “시험 잘 보세요”라고 응원했다.

○...광주시교육청 제26지구 제35시험장인 대광여고에선 수험생 2명이 시험장이름이 엇비슷해 착각했다가 제대로 찾아

타고가던 승용차 펑크 119지원 요청도 시험장 착각 수험생 1교시 치르고 이동

가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이날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에게 대광여고로 보내달라고 했다.

대광여고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시험장이 대광여고가 아닌 대성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대광여고 앞에 대기했던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나해 치렀던 수능시험장에서 또 시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한 시각장애

재수생이 1교시를 마치고 경찰의 협조로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에서 수능을 보고있던 김모(여·21)씨는 광주시교육청에 “시험장을 착각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우선 시험을 치른 뒤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10시40분께 1교시를 마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에 올랐다.

경찰은 교통을 통제하며 쉬는 시간 20분 동안 김씨를 15km 떨어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선우학교로 옮겨 무사히 시험을 보게 해주었다.

○...13일 오전 8시15분 광주시교육청 제26지구 제3시험장인 동신고 앞엔 학부모가 자녀 수험생에게 시계를 전달하기 위해 급히 뛰어가기도 했다.

또 교통체증으로 입실시간에 쫓긴 수험생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인 송원여고로 향했다. 한 재수생은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어머니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바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지만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무등산 첫 눈

13일 새벽 광주시 동구 무등산 정상부근에 첫눈이 내렸다. 누에봉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하얗게 쌓인 눈을 반기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무등산에 쌓인 눈은 1cm가량으로 기록됐다. 순천 기상대에서는 올해 공식적인 첫눈이 관측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해질 17:28 달돋이 00:00 달짐 12:42

간격스런 겨울날씨 '감기주의!'
가끔 구름 많겠으며 오전 일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2/12	보성	구름많음	0/12
목포	가끔흐리고비	5/12	순천	구름많음	2/12
여수	구름많음	4/12	영광	가끔흐리고비	3/12
나주	구름많음	1/12	진도	구름많음	3/12
완도	구름많음	4/13	전주	구름많음	2/11
구례	구름많음	0/11	군산	바운외 맑	1/10
강진	구름많음	2/13	남원	구름많음	0/10
해남	구름많음	2/13	홍산도	가끔흐리고비	8/12
장성	구름많음	1/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	서~북서 1.0~2.5	서~북서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47	06:31
		00:00	19:15
여수		07:18	01:03
		20:24	13:59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	☁	☁	☀	☀	☀	☁
1/12	4/15	8/12	6/13	3/15	3/16	4/16

◇생활지수

- 식중독: 33
- 운동: 40
- 빨래: 70